

손현보 목사와의 대담



대담자: 황대우(개혁주의학술원책임연구원)

Q: 교회가 지어진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A: 63년 정도 되었습니다, 교회역사가 60여년 됩니다.

Q: 간단하게 가족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저와 집사람, 2남 1녀이고, 첫째는 미국에서, 둘째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막내는 군대 갔습니다.

Q: 모태신앙이신지요?

A: 아닙니다. 저 혼자 먼저 믿고 나중에 온 가족이 믿었습니다.

Q: 언제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A: 중학교 2학년분부터 교회에 다녔고 3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을 믿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Q: 구원의 확신과 회심에 관한 특별한 경험이나 계기가 있는지요?

A: 계기는 있었습니다. 무척산에 산초(추어탕에 넣어먹는)를 따러 올라 갔다가 큰 바위에 깔려 그 자리에서 즉사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때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는데, 그 때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고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일 동안 꼼짝을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일어나게 되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했는데 4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Q: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 즉 소명은...

A: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마을은(생칠리) 120가구 정도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기로는 우리 집이 1-2등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찍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집안도 복잡했어요. 논 한마지기, 밭 한때기, 집 한 채 없이 남의 집에서 방 한 칸에 저희 어머니께서 18년을 사셨어요. 사람대우를 받고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았지요. 그 당시에는 머슴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저희 4남매가 너무 먹고살기 힘들니까 저는 집에서 잠만 자고 그렇게 어렵게 머슴살이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 없고, 기죽을 것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학교를 맡으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Q: 그러니까 신학교 입학은 중학교 3학년부턴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이군요. 고신대학과 신학대학원 졸업하셨는데, 혹 그때 그 학창시절에 인상적인 사건이라도 있었습니까?

A: 워낙 가난했던 터라 생칠리 교회에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2만 5천 원짜리 가방 하나 사주더라고요. 등록금도 없고 했는데, 주례에 있는 불연사 스님이 등록금을 대주어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하고 입학식을 했는데, 생칠리에서 통학도 안 되고, 자취할 돈도 없고,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해서 차라리 절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불연사 절에서 나의 처지를 알고 통학하도록 허락해주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신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A: 학교 다니면서는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5개씩 했죠. 그러니 안 해 본 일이 없었죠. 영화 티켓 판매부터 신사복도 팔고, 밤새 고철 팔아먹지 못하게 감시하는 일 등 노은환 목사와 둘이서 횡단보도에 줄 세우는 아르바이트 등, 아르바이트 한 일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나죠.

Q: 학번이?

A: 80학번 들어갔다가, 83학번으로 다시 입학했죠. 80학번이 연수와 마지막 학번이었습니다.

Q: 혹시 아르바이트 말고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는지요?

A: 아르바이트 하고 바빴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책을 열권 이상 읽었습니다.

Q: 그래도 학창시절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 그런 일은 없는지요?

A: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단 하루도 가치 없는 삶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지만 너무 즐거웠고 ‘오늘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죠. 항상 즐거웠죠. 특별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Q: 부교역자 시절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시작하셨는지요?

A: 군대 갔다 와서는 무척산 기도원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과 새벽에는 원장님 안 계실 때 설교했죠. 그 때 박윤선 주석, 매튜 헨리 주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죠. 무척산에서 2년 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 광안남교회, 대학원 때는 함안에 지금 함선교회라고 나환자촌에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광안남교회에서는 중고등부를 맡았고, 신학대학원 시절에는 함선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았습니다.

Q: 부교역자 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A: 그곳은 나환자촌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20명이 안 되었어요. 나는 전도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지만, 장로님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외부인들이 오는 것도 반갑지 않고, 그들이 가는 것도 반갑지 않다는 것이었죠. 외부인들이 오면 그곳은 양돈, 양계도 하고, 배설물을 말려서 팔았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이 오는 것도 반갑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매일 4개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했죠. 교사들도 한두 명 따라 나와 전도하기 시작했죠. 결국 모든 교사들이 학교를 다 말아서 전도했더니 두 달 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200명 정도 출석하게 되었죠.

Q: 나환자촌에 가서서 새로운 마을 환경을 만드셨는데, 그럼 그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A: 처음에는 외부인들이 놀리기도 하고 하니까 피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공감을 하게 되니까 정말 많이 섬겼죠. 아이들도 많이 따르고 교사들도 감격해서 울고... 말로 다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Q: 지금 담임하고 계신 이 교회에 부임하셨을 그 때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부임하실 당시 교회 이름이 지금 이름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A: 녹산제일교회였지요. 1953년에 개척이 되었으니까 61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교회죠.

Q: 처음 오셨을 때의 상황이라든지.

A: 제가 40주년 될 때 부임했는데 장년이 20명 정도였고, 그 중 절반이 과부들이었죠. 40년 동안 담임교역자가 14번 바뀌었고 제가 15번째로 부임했죠. 당시 이 마을에는 1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당시 주변 6개 마을에 300명 정도 주민이 있었죠. 저는 부임 첫날부터 100명 목표로 전도하지고 설교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죠. 장로님 한분 계셨는데 저를 불러서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100명 못 앉습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대하셨죠. 그래도 저는 집사람과 함께 매일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누군지 모르니까 인사했다가 누군지 알고부터는 가는 집마다 매일 쫓겨났죠. 다 안 믿으니까. 여기 앞에 다 바다였는데 배타고 나가기 전에 재수 없다면서 쫓아냈죠. 그래도 매일 전도하니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밤 12시에 집

집마다 다니면서 대문 앞에 무릎 꿇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니깐 3개월 지나니깐 100명이 출석했죠. 4개월 되니깐 120명 되고, 2부 예배드리다가, 지금 교회당이 4번째 새로 지은 것입니다.

Q: 전도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A: 지도를 다 그렸죠.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할 때 반응이 어떠한지 반응한 그대로 기록했죠. “우리는 불교요. 오지마소!”라고 말하면 그 말 그대로 적어두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존에 믿던 종교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전도했죠. 지금은 1년에 2000여명 정도가 초청되어 와요. 그중에 1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고 믿게 되요. 어떤 불신자든지, 몇 번 대화를 나누면 마음의 문을 열고 믿겠다고 결단을 하지요.

Q: 다 성령님의 역사겠지만, 목사님만의 전도 노하우라든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감이 온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A: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예배에 참석하고, 3분 정도만 대화를 하면 일단 70-80%는 믿겠다고 합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1년 단위로 계신해보면 통계적으로 믿을 확률이 5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Q: 지금 출석교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출석교인은 3500명 정도 됩니다.

Q: 들으니까 1,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에는 식사당번이나 주일학교 교사 등 봉사자들 위주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2부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부 예배에는 약 3000명 이상이 참석한다고 봐야겠네요. 약 20년 만에 20명에서 3500명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치를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생활을 자연스럽게 해 나가는데, 제가 제자 훈련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 제자훈련은 아마도 보통 다른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정도로 생각했다가는 전부 탈락하고 말 정도로 엄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1초라도 지각하면 5천원부터 벌금을 물립니다. 한 주에 한명 전도를 못해오면 벌금이 2만원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5천원입니다. 설교 요약을 해서 삶에 적용을 못하면 5천원, 요절을 두개 못 외우면 1만원, 과제 안하면 5천원, 성경을 안 읽으면 15만원입니다. 그 돈은 제가 10원도 안 가져옵니다. 제자훈련 시작부터 졸업까지 식비, 여행비, 오락비 등등 제자훈련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모든 경비에 소비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내는 벌금이 3-4백만원 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약사 같은 전문 직종 사람들은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과제를 잘 못해 벌금으로 때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 결석하면 잘리죠. 그러면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집사든, 장로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신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려면 잘 섬기고, 겸손하고, 나누고,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답사를 오시는 분들은 다 놀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이면 수천 명이 식사를 하는데, 유급 직원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료 봉사자들이 자발적으

로 수천 명 분의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배식을 합니다. 배식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전문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 하는데도 군대보다 더 능숙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면 모든 직분자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동참하고 한 영혼이라고 구원하겠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섬기기 때문이죠. 직분자일수록 철저히 섬깁니다. 누가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보고 자동적으로 합니다. 목적을 상실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다 폐지시키고, 성가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입만 뻥긋 거렸지 실제로는 교회 목적에 맞지 않기에 폐지시켰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든지 바꾸든지 한 것입니다. 찬양대가 없는 대신에 청년회가 찬양단을 만들어 찬양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연습해서 신청해서 합니다. 교회에서는 기존 교인들을 위해서는 10원도 지출하지 않죠. 하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은 사람 자발적으로 하지, 억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기분 나쁘다, 뭐, 설거지 하는데 우리만 하고 누구는 안 오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 지원하는 사람만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Q: 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불평하는 사람이 전혀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A: 없진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물음에 철저하게 대답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도 조금 지나고 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쁘게 하니까 불평하던 사람도 기뻐하죠.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데려오고 싶은 친구가 울산에 있으면 울산까지 가서 태우고 함께 예배드리고 태워다 줍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되면 삼천포에서, 진주

에서, 남해에서, 경주에서, 포항에서 사람들을 많이 태워옵니다. 친구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교회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Q: 그렇다면 서울에서라도 여기 참석하겠다는지, 비행기라도 타고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할 경우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A: 교인들은 자기 형제 부모 친척 친구들을 한번이라도 예배 참석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온갖 섬김을 아끼지 않고 한 번이라도 와 보라고 합니다. 와서 말씀이라도 들으면 [믿을] 확률이 50%입니다. 그리고 그날 안 믿을지라도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이 몇 번 더 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세 번만 와 달라, 내 죽어서는 안와도 좋으니까 다섯 번만 제발 참석해 달라' 이렇게 엄청 부탁하고 섬기면 그들이 세 번 혹은 다섯 번 옵니다. 오면 대부분 믿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집 가까운 교회에 다니도록 합니다.

Q: 지금 현재 부산하고 창원, 김해 주변과 같은 근거리 외에 포항이라든지 경북 등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A: 대략 한 시간 정도 거리에서 한 오십 명 정도.

Q: 원래 여기 사시다 그곳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은 아니고요?

A: 전혀 아니죠. 친구나 그런 분들이죠.

Q: 사실 성장 원리니 비결이니 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들어보니까 세계로교회의 성장 원리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의 자발적 구령

운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A: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 전도하라 이런 설교는 10년 간 한 번도 안합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 할 때부터 모든 사역을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교회 건물이 있으면 다냐? 교회만 다니면 다냐? 그러면 왜 능력이 없느냐?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원래 교회가 갖추어야 될 모습을 갖추어 보자.’ 등과 같은 취지에 집중하여 훈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것이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전도는 모든 교인이 기본이라 생각하게 된 거죠.

Q: 설교시간에 전도에 대해 강조하지는 않지만 제자훈련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신다는...

A: [제자훈련에서는] 전도, 섬김, 실천을 강조합니다.

Q: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A: 목회를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얻는 거고 사람들이 구원 받게 하는 것이죠.

Q: 그런 목회 철학을 갖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있는지요? 내가 목사가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이 있다면...

A: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설교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감동

적이었던, 지금도 목회를 하는데 아주 뜻 깊게 새기고 사용하는 그런 책이나 사람이나 있다면요?

A: 딱히 영향 받은 책은 없고, 특별히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도 없지만, 그래도 크게 영향을 받은 게 있다면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전도사님께 궁금한 것들을 자주 질문을 했더니 전도사님이 자기 책장에 가서 책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책장에 있던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 때 제게 가장 와 닿았던 것들은 일제시대 순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삶, 신앙생활 등등 이런 것들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죠.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최악의 상태에 죽는 것 밖에 더하겠나?’라는 각오로 생활했고, 그런 신앙의 삶을 가지고 왔죠.

Q: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 지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의 기초가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세계로교회의 교회 운영체제가 다른 교회의 운영체제와 조금 다르고 특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해주실 수 있는지요?

A: 특이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은 별로 없는데,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일반 [장로]교회의 장로나 당회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Q: 당회가 없진 않지만, 일반 교회의 당회처럼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A: 일반 교회처럼 하면은 뭐 ‘성가대에 연간에 얼마를 지출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하잖아요? 우린 그런 것은 일절 없죠.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그 나머지 장로님들이 할 일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고,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일에 본을 보이면서 복음 전

하는 일을 전담하고, 저도 제가 해야 할 전도와 기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일반 교회와 달리 교회 재정에 관여를 안 해요. 교회 재정은 회계부가 있어서 누구든지 각자 맡은 일을 위해 회계부에 재정을 청구하면 저희 교회는 [청구금액] 100%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산은 안 세우고 결산만 하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개입하거나 그렇지 않죠.

Q: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니 굉장히 독특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래의 교회다운 운영형태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입과 지출의 교회 재정 관리는 회계부가 맡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A: 그렇죠. [재정 관리는] 일반 교회처럼 그렇게 합니다.

Q: 회계부에는 장로도 들어갑니까?

A: [회계부에는] 장로님도 있고 [남자] 집사님도 있고 여자 분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회계부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회계부의] 반은 여자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구역입니다. 교인들은 전부 구역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부 같은 부서를 위해 빼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당회원 중에서도 [회계부에] 아무도 안 갈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협박 공갈해서 '말으라!'하면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신실한 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잘 하는 분들이 십일조, 감사헌금, 비전헌금 등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재정 관리는 이중으로 체크를 해요. 장부 정리하는 사람과 전산 처리하는 사람이 [함께 체크하죠.] 전산 입력을 하면 청구서가 올라올 거잖아요? 주일학교부터 전 교인들이 누구든지 정말 복음에 필요하다면 청구서를 올리고, 회계부는 올라온 모든 청구서대로 다 지출을 해요.

그리고 결과만 [제게] 보고합니다.

Q: 목사님께서서는 재정과 관련하여 지출 전에 허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출이 집행된 후 그 결과 보고만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A: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은 늘 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훈련을 통해 어떻게 재정을 사용할 것인지 사전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일은 없죠.

Q: 전체 교회 운영을 위해서 회계부와 같이 다른 부서들이 있습니까?

A: 회계부 있고요, 당회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이 있죠. 구역이 최고 중요합니다.

Q: 구역이 핵심이고, 회계부와 당회는 구역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A: 예! 저희 교회는 ‘중직자회의’가 있고, ‘제직회의’는 없어요. 제직[회] 해봐야 사람 얼마 안 모이는데, 중직자회의는 구역장, 안수집사, 권사, 장로 부부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대부분의 내용들을, 전체가 다 모여 누구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취합을 하고 바로바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교회는 당회에서 주로 거의 다 하는 것을 우리는 중직자모임에서 합니다. 모든 모임은 부부로 모임입니다. 당회도 남자만 모이는 당회는 잘 없습니다. 당회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2-3분 이상 넘어가는 당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모이면 차 한 잔 하고 마치죠. 이런 체제를 이해시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로님이나 목사나 다 가족처럼 지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나이가 당회에서 어려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동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집사님들도 권사님들 보고 ‘언니’라고 부르고 구역에서도 ‘구역장 형님’ ‘언니’, 호칭을 사용해요. 당회도 일반 교회의 당회의 개념과 달리 그냥 한 열 몇 명 모이는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고 한 몸 된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족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Q: 그럼 당회 중심의 운영 체제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A: 당회 중심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당회 중심이긴 한데 당회원들이 ‘당회가 왜 존재하는가?’ ‘장로는 왜 있느냐?’를 잘 알기 때문에 권위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로가 집사에게 ‘김집사, 오늘 밥 좀 가져와라!’라고 말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몸이 병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교회에 처음 온 불신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밥을 챙겨주는 것이 우리 당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같이 장로는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죠. 부모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다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저귀 같고 다 하듯이 당회원들이 그런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당회가 약하다는데, 그건 약한 것이 아니죠. 당회야 말로 교회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입니다. 장로님들부터 아침에 와서 화장실 청소, 주차관리 등등 험한 일을 스스로 합니다. 직분자는 차를 절대 교회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는 주차장이 다 비어있습니다. 모두 밖에 댁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3000평이라도 너무 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차부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주차부도 없습니다. 왜 주차부가 없느냐? 장로님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와서 ‘저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부서 없이도 모든 게 원활하게 잘 움직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봉사의 핵심은 장로님들이라 볼 수 있죠.

Q: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자발적인 봉사의 본을 보이는 중심이라는 말

씀이시죠?

A: 그렇죠. 본을 보이는 것이죠.

Q: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장로가 있었습니까? 그분은 목사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A: 그 장로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동의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 때까지 목회자가 기다리기는 어렵잖아요? 교인이 100명 정도 모이니까 장로님이 열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다 좌지우지 했는데 갑자기 시골 촌에서 100명 모아 놓으니까 모두 전도사 편이 다 왔다 해가지고, 설교 마치고 나면 나오라고 안했는데도 나와서 마이크 들고 저를 하루에 30분씩 비난을 했습니다. 설교 30분 하는데 장로님이 저를 30분이나 비난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3년 보냈습니다.

Q: 그렇게 3년 하시고 그 장로님은 나가셨습니까?

A: 아니요. 지금도 계시죠. 완전히 변화됐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 장로님이] 안수 못 받게 하려고 유언비어 퍼트려 가지고 안수 받으러 갔다가 안수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모함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악질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참고 안고 [목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의 권위에 순복했지요. 일반 교회에서 똥을 뿌릴 만큼 반대를 해도 대항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섬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도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참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시절 제가 '이 새끼, 저 새끼' 온갖 소

리 다 들었고 뽀까지 맞았지만 다 참았어요. 군대 가서 돈 3200원 받고도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 말 한마디 못했는데, 목회 하다가 몇 대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Q: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작하실 때부터, 아니 교회 다니기 시작한 중 3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도사를 거쳐 목사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교인이 많은 교회 담임이 되셨는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A: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초기처럼 몸으로 때우는 것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혼자 다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일들이 많아졌죠. 저희 교회 교역자가 적은 이유는 거의 모든 사역들을 교인들이 다 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230명이 결석을 했는데, 제가 연락을 다했어요. 우리 집사람 하고 저는 결석한 교인들을 한 사람씩 다 챙깁니다. 제 혼자 다 못하는데, 집사람과 함께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우리 교인들 전체 이름, 아이들 이름도 거의 다 외웁니다. 저는 집사람을 못 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삶을 살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역이나 교회에서 심방하고 활동하고 보고하면 답장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새벽에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저녁마다 돌아다니고 하는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달라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저는 항상 우리 집사람에게 하는 말이 '지금 개척을 한다 해도 그때와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 규모만 커진 것일 뿐이지, 제가 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노회나 이런 곳에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연합회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늘 교회나 집에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이 비슷한 동선에서 움직입니다.

Q: 그럼 혹시 장로교 체제가 가진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A: 장로교 체제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오늘날 같은 이런 [권위적인] 장로와 같다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Q: 감사합니다. 지금 손목사님은 고신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데, 목사님을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인사로 만들어 준 것은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인지요?

A: 유명하게 만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골에서도 전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그래서 책을 펴내게 되었고... 책이 제 사역을 더 넓혀주었다고 보죠.

Q: 아무튼 그 책 덕분에 전국적으로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가 되신 것이죠. 책을 몇 권 출판하셨습니다?

A: 두 권.

Q: 두 권요? 보통 책을 내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내니깐... 두 권 중에 더 애착이 가는 책은 어느 것입니까?

A: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책은 조그마한 한국판 전도폭발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도폭발이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사실 저도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은 대로 해보니깐 한 시간 정도 [전도]하면 사람이 영접하는데 교회는 안 오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들어가니깐 '네네' 하긴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영접은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믿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정도를 매일 불신자를 만나면서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10년 동안 전도해왔습니다. 저는 주로 문답을 하거든요. ‘영혼이 죽으면 끝이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답으로 예를 들면,

A: 선생님 혹시 쥐의 DNA와 사람의 DNA가 얼마나 동일한지 아십니까?

B: 잘 모릅니다.

A: 97% 이상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쥐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 아미타불’ 하는 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사람에게만 내세의 사정을 갖게 되는가? 왜 사람만 그럴까? 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왜 사람만 종교를 가질까요? 97%나 동일한 DNA를 가졌는데?

이런 식으로 문답을 합니다. 모든 영접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하면 영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한 2년 쯤 됐을 때 집사님, 권사님을 불러서 특정 마을에 가서 경로당이나 그런데 가서 아무 사람이나 점심을 사준다고 한 20여명 모시고 오라고 하니깐 거기서 한 20분 떨어진 마을에 가서 사람을 20여명 모시고 온 거예요. 우리 교육관으로 왔기에 제가 가서 ‘저는 사실 이 교회의 목사인데…’ 하면서 해보니깐 20명 중에 16명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책으로 낸 거예요. 사실은 실제 [전도]하는 광경, 다 영접하는 [광경] 등을 담은 DVD도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틀정도 해서 하면 95%정도 결신하죠. [다른] 목회자들도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건데, 그냥 불신자들이 오면 목사님들이 ‘어디 사느냐?, 뭐 하느냐?’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 진도를 못나가요. 불신자들이 오면 인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복음제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해요.

Q: 지금 말씀하신 책은 작은 책자라고 말씀하신 한국판 전도폭발을 말합니까? 그것을 목사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그 책이 가장 애착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A: 애착이 가는데,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처럼 재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보고 하면 엄청 쉬운데, 저는 이 책이 좋죠.

Q: 지금 사실 고신 교단의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소형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형교회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금 말씀하신 ‘이걸 적용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A: 소형교회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책도 아니고요... 저는 이 동네에 와가지고 그렇게 적대적이고 40년 동안 교회가 [마을 사람들에게] 본도 되지 못하고 몇 명모이지 않는 교회가 싸우고 난리를 했어도, 집사람하고 매일 가서 쫓겨나더라도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인사드리니깐 사람들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만약에 100명 모이는 지역에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목회자가 이런 책 몰라도 매일 주민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사하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감기약 사주면서 하루 2시간씩 동네를 1년만 돌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곳의 목회자가 전도 안하잖아요. [신학교에서] 7년 동안 배우고 최고의 목회전선에 서 있는 목회자가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어제도 목회자 세미나 하고 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1년만 동네사람들한테 인사만 하고 다니고, ‘아들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럼 목사님이 해결해주고, 간단한 거, 노동도 아닌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서 1년만 매일 아침에 인사 한 번만 하면서 필요한 것들 알아서, 약도 좀 사주고, 촌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간다면 정류소까지 차도 태워주고, 이런 사소한 일을

하루에 2시간씩 1년만 하면 모든 목회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왔다고 해서 ‘군대 가는 게 좋습니까? 하루에 2시간씩 인사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쉽겠습니까? 인사하는 게 쉽죠? 그런데 왜 그걸 안하십니까?’ 인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면서도 인사 안하잖아요.

Q: 목회자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자기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A: 목회자니깐, ‘나는 왜 존재하는가?’ 월급 받아가지고 사는 게 목회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세월호 승객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고 자기 가치를 알았다라면 도망갔겠죠.

Q: 목회에 대해서 교단후배 목회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그런 건 없고요. 개척교회든, 무슨 교회든,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접촉을 하고 섬기면, 인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동네만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조그마하든 큰 마을이든 다 교회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믿을지라도, 내 교회가 부흥이 안 될지라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혹 목사님께서 신대원에서 가르치신다면, 목회현장을 위해 이 과목, 이런 훈련내지는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전도폭발 같은 이런 겁니까?

A: 인사라도 해야지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인사라도 못하겠다면 목

회사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구멍가게 하는 슈퍼주인은 구멍가게가 안 되면 홍보도 하고, 안 되면 몇 천만 원 날리는 거 아닙니까? 도시는 몇 억을 날릴 거고, 그럼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도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교회가 안 되면 20명, 30명 모이면 우르르 몰려다닐게 아니라, 인사라도 다니고, 전도라도 다니고, 하다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만 그것도 안하잖아요.

Q: 만약에, 신대원에서 목사님의 노하우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신학생들에게 정말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시면 하시겠습니까?

A: 한 학기동안 할 만한 밑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 수영로교회 누구도 만나보니깐, 목사님들이 양산지구 저 쪽으로는 안 맡으려고 한답니다. 해운대쪽은 맡으려고 목사님들끼리 [경쟁이] 아주 치열하답니다. 양산가서 혀가 빠지게 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 생기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목사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내가 목적이 되고 나면 그 마음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Q: 100명의 목회자가 있다면 100명 가운데 목사님 같은 목회자는 한 분 뿐일 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100명 가운데 90명 정도라도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신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적도 없고...

A: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자랑도 아니지만은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목회자도 존재목적을 분명히 하고 저도 제가 여기 올 때에 다른데서 한 5군데서 한 주간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최고 먼저 불러서 왔는데 제가 그 때에 계획을 세웠어요. 몇 가지를 그 중에서 내

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잘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한 중에서 첫째로는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설교를 안 한다. 이게 지금까지도 제가 작년에도 200명 정도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설교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돈에 민감하잖아요? 교회나 집회나 어떤 경우에든지 사례비 말고 예배를 드리고 사례나 차비는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백일이나 돌이나 한 번도 기념[한 적 없고] 내 생일 해먹은 적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아무에게도 연락 안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왔지만 ‘꽃다발 하나 가져오지 마라!’ [했고], 그리고 밥 하나 준거 없습니다. 조문만하고 다 보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건 너무하다!’고 그래서 굴 20박스 사서 굴 2개씩만 드렸어요. 어떤 조의금도 받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전파가 되면 설교를 안 해도 사람들이 ‘아, 생명을 귀하게 여기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장로라고 해서 처음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죠. 이런 존재 목적에 대한 것이 바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지금 세계로교회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A: 우리는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아는 게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것이고, ‘그 분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어떤 목적에 조금 더 충실하고자 합니다.

Q: 현재 세계로교회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요?

A: 당연히 전도이겠지요.

Q: 제가 보니까 국제학교도 있던데...

A: 국제학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요. 1년에 개안수술 1000 명씩 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베트남 분들... 그런 분들이 고향에 갈 때 항공권을 무료로 사드리고... 시골이니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자식이 있어서 도움은 못 받는데 도움은 필요하고... 그래서 쓸이 필요한 사람들은 무제한으로 교회서 드립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Q: 가장 집중하는 것은 당연히 전도이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을 돌보고 국제학교를 통해 의료, 개안수술 그리고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로교회 비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앞으로 세계로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

A: 계속 전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기독교 문화를 조금 더 호의적인 기독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개안수술도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거든요. 누구든지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지 수술을 하고 연락하면 우리는 돈만 부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교회에서 수술비를 받아서 수술했다고 그 사람 마음에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섬김을 통해서 문화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한 비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Q: 세계로교회는 구역장이 구역의 모든 대소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목사님께서 구역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체제의 교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A: 네 그런 걸 당회원들이나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Q: 마지막으로 미래의 고신 교단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A: 고신교단이든, 한국교회든, 통계적으로 본다면 세월호가 가라앉은 속도만큼 가라앉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위기를 못 느끼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픡니다.

Q: 위기라는 것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려서 교회가 침몰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는 그 위기를 못 느낀다는 겁니까?

A: 전도든, 무엇이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인구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속도로 [교인수가] 내려갔을 때, 지금 중고등부 안에서, 대학생들 안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믿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몇 명 없잖아요. 이 정도로 어른 세대와 아이들 세대가 역삼각형으로 확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고, 자기 교회 일을 일간 신문에 광고나 내고...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이권쟁탈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안타깝지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사실 저도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해오다가 몇 군데 집회 가서 보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식은땀이 납니다. 십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언론부터 전부다 좌파중심이고, 기독교에 호의적인 것도 없죠. 어린이부터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없습니다.

Q: 목사님께서 평생 여기 오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앞으로 세계로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A: 세계로교회도 어느 단계까지는 계속 사람은 모이겠지만, 그래도 이 물줄기를, 힘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Q: 목사님께서도 때가 되면 은퇴를 하실 텐데... 지금이야 한참 젊으시지만... 은퇴를 하시고 나면 다른 누군가 지금 목사님의 자리에서 목회를 감당을 하게 되겠지요. 후 후임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A: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부터 생각을 해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공부를 시켜서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Q: 교회 뒤쪽에 국제학교가 있더라고요.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A: 여기는 교육적으로는 사각지대고 초등학교도 지금까지 50명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사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애들이 와서 조금 늘어났어요. 여기는 어디 가서 공부할데도 없고... 그러니깐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애들이 공부도 좀 하고 방과 후에, 방과 후 학교거든요, 학교 갔다 와서 영어도 좀 하고 그렇게 합니다.

Q: 방과 후 학교인 국제학교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외국어입니까?

A: 네.

Q: 국제학교에 들어오는 것은 교인들[의 자녀]입니까?

A: 80%가 교인들[의 자녀]이고 외부 사람들 [자녀]도 있고 또 다른 교인

들 [자녀]도 있습니다.

Q: 국제학교를 시작하신 특별한 계기라도 있습니까?

A: 교육적으로 사각지대니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는데 자녀들이 잘못되면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자녀들이 비리비리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도 보완을 할 겸...

Q: 오늘 참 바쁘신데 좋은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 들으면서 정리를 함 해볼게요. 목회철학이랄까, 교회방향, 오늘날 교회의 성장배경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강력한 리더십이고, 두 번째가 목회철학인데 즉 영혼구원에 대한 확신, 세 번째가 목적 지향적 교회운영, 네 번째가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 형성, 다섯 번째가 결국은 땀 흘린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 목회철학이고 목회방향이고 교회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손목사님 생각에는 교수님께서 요약을 잘 하신 겁니까?

A: 네.

Q: 감사합니다. 손목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냥 된 게 아니고 정말로 땀 흘린 결실입니다.